



미 연준,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미 연준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(MBS)을 매입하는 내용의 추가 양적완화정책(QE3)을 발표함.

- 9월 13일 미 연준은 경제성장과 고실업률 해소를 위해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(MBS)을 매입하기로 하는 추가 양적완화정책(QE3)을 발표하였으며, 0~0.25%의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함.
- 연준은 단기국채를 매도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(operation twist) 정책도 유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연준은 2012년 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 상당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됨.
- 버냉키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재정절벽(fiscal cliff)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요구함.

■ 연준의 QE3 발표 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순익 감소로 실업률 안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, 연준 내부에서도 QE3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됨.

- 17일 Financial Times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명목국채수익률과 물가연동채권의 차이(BEI)가 연준의 QE3 발표 후 2006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2.73%까지 상승하였다고 밝히고 이전의 양적완화정책과 달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지적함.
- 뉴욕 타임즈는 16일 미국 기업들의 분기 순익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고 순익 감소 전망이 해고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, 고실업률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.
- 16일 리치몬드 연방은행장 Jeffrey Lacker는 QE3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는 반면 고용시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QE3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.

(Financial Times 등, 9/20)